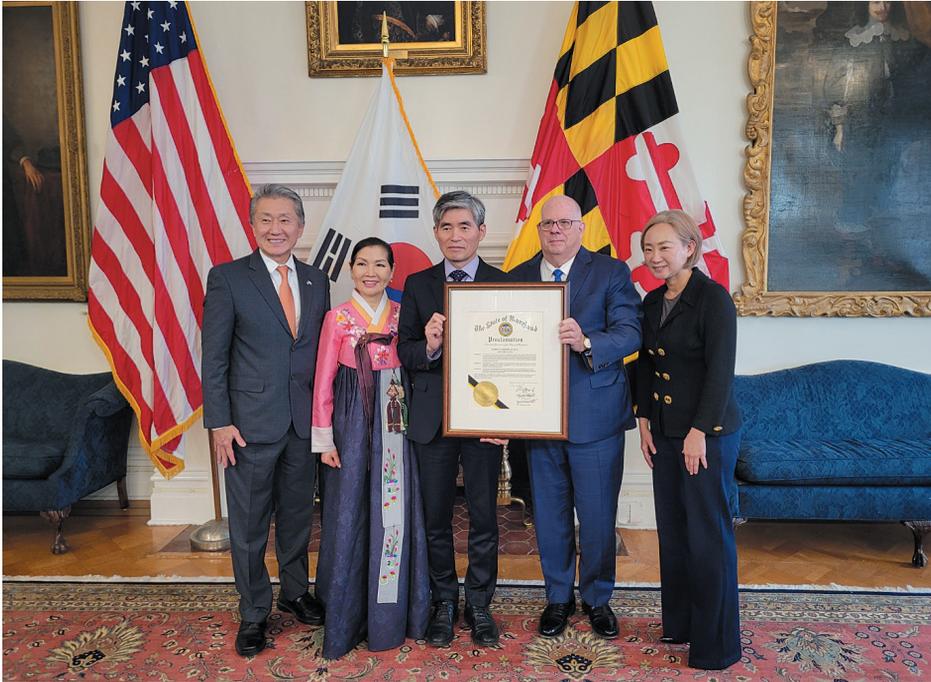




특집 _ 간도대학살 100주년... 조선인 6천여 명의 억울한 죽음
기획 _ 바이든 “철통같은 한미관계 재확인... 한인 기여로 美 위상 강화”
화제 _ ‘한국 사위’ 호건 美 메릴랜드주지사 8년 임기 마치고 퇴임



‘재외동포 차세대 교육의 요람’ 서울대 시흥캠퍼스



김규홍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본부장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는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글로벌 리더십 캠퍼스 조성의 일환으로 건립됐습니다. 시흥캠퍼스가 자리 잡은 경기도 시흥시의 배곧신도시는 ‘배움의 터’라는 의미의 순우리말로, 주시경 선생이 ‘조선어강습원’을 ‘한글배곧’이라고 부른 데서 유래합니다. 그런 연원에 어울리게 시흥캠퍼스는 인천국제공항과 서울대 관악캠퍼스의 중간에 위치하며, 인천 송도와도 가까워 국제화 교육장으로 지리적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라는 제도적 뒷받침까지 받게 되면서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췄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은 730만 재외동포와 80만 국내 체류 동포를 대상으로 교육, 연구, 문화,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공간으로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와 내국인의 소통과 화합이 이루어질 역사적 공간이 될 이 센터가 서울대 시흥캠퍼스에 들어오게 된 것은 뜻깊습니다. 재외동포 사회의 세대 교체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만큼 한민족 정체성 함양과 교류 증진을 위한 차세대 교육이 재외동포 사회의 중요한 화두이며, 이를 위한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를 시흥캠퍼스 안에 건립함으로써 재외동포재단과 서울대 간에도 많은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재외동포재단은 현재 교육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며, 2023년 하반기 착공해 2025년 하반기에 준공 및 개원 예정입니다.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가 건립되면 서울대와 재외동포재단은 협업을 통해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 재외동포 차세대 교육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한인 차세대 리더 발굴 및 차세대 민족 정체성 고양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 기관은 또 올해부터 시행 예정인 ‘세계 한인 최고지도자 과정’을 통해 국내외 한민족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한류 확산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한국어, 한국 역사 문화 등 한민족 정체성 함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외동포 관련 정책연구 분야 협력을 확대해 미래 한민족 정체성 함양을 위한 장기적 방안도 모색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단이 추진 중인 다양한 공익사업 협력을 통해 한인 네트워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재외동포 간 유대감을 강화하는 등 한민족 공동체 구현과 민족 정체성 제고에도 서울대와 재단이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우크라이나 전쟁 및 불안정한 경제 전망 등 어려움이 산재했음에도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 명실공히 인정받을 만큼 괄목할 성장을 이뤘습니다. 앞으로의 국가적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긍심을 고양하는 것은 국가발전의 큰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외동포 사회의 숙원인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의 성공적인 설립과 운영을 통해 서울대 구성원, 더 나아가 내국인과 730만 재외동포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함으로써 민족적 에너지가 극대화돼 재외동포 사회와 대한민국의 상생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창**





- 02 권두언 '재외동포 차세대 교육의 요람' 서울대 시흥캠퍼스
김규홍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본부장
- 04 특집 간토대학살 100주년... 조선인 6천여 명의 억울한 죽음
- 06 기획 바이든 "철통같은 한미관계 재확인... 한인 기여로 美 위상 강화"
- 08 화제 '한국 사위' 호건 美 메릴랜드주지사 8년 임기 마치고 퇴임
- 10 한민족 공감 38년째 떡국 떡 기부한 토론토 한인 구자선 평화식품 대표
중국 대학에 태권도 전공 과정 처음 생긴다
- 12 글로벌 코리안 론 김 의원, 미 뉴욕주 하원 '한인의 날 공식 기념' 주도
전흥배 신임 재일본한국인연합회중앙회장 "참정권 획득에 집중"
강석희 전 어바인시장, 美 북서부 등 담당 총무청 행정관 부임
- 14 유공 동포 해외 거주 日 원폭 피해자 수당 지급 끝낸 박귀훈 씨 별세
- 15 주목! 차세대 美 시애틀 향만청 위원장에 한인 2세... 112년 만에 첫 아시안
- 16 지구촌 통신원 항일역사 상징 블라디보스토크 '신한촌 기념탑'의 복잡한 속사정
- 18 동포소식 재미동포 음악단체 벨칸토, 유엔 '특별협의회지위' 획득 외
- 20 문화유산 서울 암사동 신석기 유적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완성도 높은 빛살무늬토기 출토지
- 22 OKF 뉴스 해외 한인단체들에 한국 전통문화 용품 지원 외
- 24 동포 캘린더 캄보디아한인회, 독거 한인에 '안심 디지털시계' 보급 외
- 25 기고문 특별한 인연으로 만난 한글학교 교사들
육효창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한국어교육학과 교수
- 26 재단공지 제12기 OKFriends 봉사단 모집 안내



발행인: 김성곤 등록번호: 문화-라 08249

발행처: 재외동포재단

본사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55(구 서귀포시 제2청사)

전화: 82-64-786-0200, 팩스: 82-64-786-0239,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서울사무소 주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타운 405호, 406호

전화: 82-2-3415-0100, 팩스: 82-2-3415-0118,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편집: 재외동포재단 홍보조사부 prc@okf.or.kr 제작: 연합뉴스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외교부 산하 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간토대학살 100주년... 조선인 6천여 명의 억울한 죽음

1923년 9월 1일 도쿄 등 간토 지방서 규모 7.9 강진

“간토대지진의 사망자·행방불명자는 10만 5천 명 이상이며 이 중 1%에서 수%가 피살된 것으로 추정된다. 학살이라는 표현이 타당한 예가 많았다. 대상은 조선인이 가장 많았다. 중국인, 내지인(일본인)도 숫자는 적었지만 살해됐다.”

일본 정부 내 전문가 집단인 '재해 교훈의 계승에 관한 전문조사회'가 2009년 정리한 보고서에는 1923년 간토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에 대해 이같이 적고 있다. 1923년 9월 1일 도쿄 등 간토 지방에서 일어난 규모 7.9의 간토대지진이 발생한 지 올해로 100주년을 맞는다. 대규모 자연재해로 도쿄 등지에서 살던 수많은 재일 조선인이 숨졌다.

그런데 지진에 이어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방화를 한다'는 등의 유언비어가 유포되면서 조선인들이 일본 자경단, 경찰, 군인에게 학살당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독립신문은 당시 조선인 학살 희생자가 6천661명이라고 보도했다. 사회적 약자인 식민지 국민 조선인들이 무차별 살해된 간토대학살은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정확한 희생자 수와 학살 주도자 등은 아직도 미궁

하지만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확한 희생자 숫자뿐 아니라 학살을 주도한 가해자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일본군 위안부와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문제 등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간토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에는 일본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진 후 일본 내무성은 전국 지자체에 '조선인 폭동'을 사실화하는 유언비어를 타전했고, 사이타마현 경찰서는 불령선인(不逞鮮人·불온한 조선인)의 망동이 있으므로 급히 조치를



1

해야 한다고 전국으로 전파했다. 이로 인해 도쿄와 요코하마, 지바, 사이타마, 군마 등 각지에서 치안 당국뿐만 아니라 일본인 자경단에 의한 조선인 학살이 벌어졌다.

日 정부 “학살과 관계없다”... 시민사회 “학살 없었다”

일본 정부는 조선인 학살이 정부와 관계없다며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일본 사회에서도 역사 수정주의가 퍼져가면서 '학살은 없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17년 5월 각의(국무회의)에서 간토대지진 후 일어난 조선인 학살사건과 관련해 '유감의 뜻 표명'을 할 계획이 없다는 답변서를 확정했다. 일본 정부가 이 사건에 관여했다는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이 정부 내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우익 성향을 보여온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 지사는 매년 9월 1일 도쿄도 스미다구 요코야미초공원에 있는 간토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추도비 앞에서



2



3

열리는 추도식에 2017년부터 추도문을 보내지 않고 있다. 이노세 나오키, 마스조에 요이치와 ‘극우’로 불린 이시하라 신타로 등 전임 도쿄지사들이 재임 중 추도문을 보낸 것과 달라진 모습이다.

고이케 지사는 도지사로서 도쿄도위령협회가 주최하는 간토대지진 추도 행사에서 “희생된 모든 분을 추모한다”고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인을 위한 개별 행사에 따로 추도문을 안 보낸다는 입장이다. 또 간토대지진 때 조선인 6천여 명이 학살당했다는 추도비의 내용이 부풀려졌다는 우익 진영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극우단체들은 매년 간토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추모 행사에서 반대 시위를 벌이며 “6천여 명 학살은 거짓이다. 일본인의 격을 떨어뜨리는 조선인 희생자 추도비를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에서는 지난해 12월에야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관동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명부에 관한 실태조사 학술연구용역 보고서’를 발간하며 희생자 408명의 이름이 담긴 명부를 확보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명단을 공개했다. 뒤늦게나마 정부 조사기관이 희생자와 관련해 파악했다는 의의가 있으나 사건의 진상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한일 시민단체로 구성된 ‘간토100추위’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해야

한편,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사업 추진위원회’(간토100추위)는 1월 13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교회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간토대학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간토100추위는 “해마다 학살 증언을 모으고 사료를 발굴해온 연구자와 활동가들이 있다”며 “한국 정부는 반드시 간토 특별법을 만들어 역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진위는 또 일본 정부를 향해 “유언비어를 사실화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대학살을 감행한 국가책임은 더는 회피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간토100추위는 올해 한국과 일본, 중국, 미국 등에서의 학술대회와 학살 현장 방문, 역사교육, 강연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



4

간토대학살 진상 규명은 100년 전 억울하게 죽어간 조선인들의 원혼을 위령하는 것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과거 사실을 거짓이라고 부인하는 극우파들이 일본 내에서 집단학살을 정당화한다면 앞으로도 제일 동포와 외국인 등 일본 내 약자를 대상으로 한 중증 범죄가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

1. 간토대지진 당시 희생된 조선인들의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들(정성길 대구 계명대 동산의료원 명예박물관장 2013년 2월 3일 제공)
2. 2022년 9월 1일 일본 도쿄도 스미다구 소재 요코야미초공원의 ‘간토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추도비’ 앞에서 열린 간토대지진 99주년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에서 제일 한국인 무용가 김순자 씨가 진혼무를 추고 있다.
3. 1월 13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교회관에서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사업 추진위원회’가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4. 우익 성향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 지사(EPA 제공)

바이든 “철통같은 한미관계 재확인... 한인 기여로 美 위상 강화”

한인 이민 120주년 · ‘미주 한인의 날’ 맞아 기념 성명 발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월 12일(현지시간) 한인 이민 120주년과 ‘미주 한인의 날’을 기념해 성명을 내고 “한국계 미국인들의 기여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미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미주 한인의 날 커뮤니티 리더 브리핑’에서 대독자를 통해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평화와 민주주의, 안정에 대한 전 세계적 위협 속에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오늘날 우리는 한국과의 철통같은 관계를 재확인할 수 있다”며 “지난해 5월 한국을 방문해 양국 관계가 어느 때보다 강하고 활기차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역설했다. 이어 “한국에 사는 미국인이 늘어날 뿐 아니라 미주 한인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미국 문화를 풍성하게 만들고 다양성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한미 양국은 더 가까워지고 있다”며 “지금까지 한인 커뮤니티가 미국에 기여한

모든 것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미주 한인의 날을 축하한다”며 “120년 전 오늘 102명의 한국인이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하와이에 도착했고, 그들의 용기는 우리의 새로운 전통과 관습에 영원히 아로새겨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날 한국계 미국인들은 산업과 공동체를 강화하고, 고유의 재능으로 미국의 발전에 기여해 과학과 문화, 의료, 신산업을 발전시키고 스포츠에서 역사를 만들고 있다”라고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도 한인들의 이야기가 ‘아메리칸드림’이라는 약속에 영감을 주길 바란다”며 “함께하면 우리는 더 강해진다. 같이 갑시다”라고 성명을 끝맺었다.

이날 행사에는 백악관에서는 에리카 모리츠구 부보좌관, 한나 김 아시아·태평양계 정책고문, 필립 김 대외협력 선임고문 등이 참석했고, 미국 내 한인 지역사회 리더들이 화상으로 함께 했다.

미 하원서도 기념행사... 한국계 의원 등 100여 명 참석

같은 날 미국 하원에서도 한국계 의원들과 의회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인 이민 120주년과 미주 한인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 미주한인 유권자연대(KAGC)는 이날 낮 연방 하원 사무실이 있는 레이번 빌딩에서 민





의회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면서 “우리는 민주당과 공화당에 모두 동맹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목소리가 계속 크게 들리려면 풀뿌리에서의 활동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방의회 아시아·태평양경제(AAPI) 코커스 의장인 추 의원은 2021년 애틀랜타 한인 총격 참사를 거론하면서 “지난 3년간 아시안 증오범죄는 1만 1천500건 이상이 발생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자신이 공동 발의한 아시아·태평양계 미국인 역사문화박물관 설립 검토 법안이 통과된 것을 언급, “우리는 AAPI의 역사가 미국의 역사라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스앤젤레스(LA) 코리아타운이 지역구인 고메즈 의원은 “미주 한인의 120주년은 우리가 축하해야 할 이정표”라면서 “왜냐하면 미국 역사의 연속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LA에 건립 추진 중인 ‘미주 한인 박물관’ (Korean American National Museum)과 관련해 “첫 미주 한인 박물관 건립과 관련해 700만 달러의 예산을 확보했다”면서 “이곳은 사람들이 가서 역사를 읽거나 심지어는 역사를 맛보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1. 한국계 앤디 김 미국 하원의원이 1월 12일 연방 하원 빌딩에서 열린 ‘미주 한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 ‘미주 한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축하하는 메릴린 스트리클런드 미 하원 의원
3.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4. 지미 고메즈 미 하원의원(AP 제공)

주당 소속인 앤디 김(뉴저지)· 메릴린 스트리클런드(워싱턴)· 주디 추(캘리포니아)· 지미 고메즈(캘리포니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주 한인의 날 리셉션을 개최했다. 행사장에는 보좌관 등 의회에서 일하는 한국계 미국인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민 2세인 앤디 김 의원은 자신의 부모에게 50년 전 이민을 결정한 이유를 묻자 자식들이 더 나은 삶과 기회를 미국에서 갖길 희망했다고 답했다고 전한 뒤 “미국의 한인 역사를 생각할 때 우리는 부모와 조부모 등이 첫걸음을 내디딘 용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이뤘고 이를 일으킨 우리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큰 것의 일부”라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앞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존경심을 표하고 그것이 저절로 이뤄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다. 앞으로 20년, 50년, 120년이 우리한테 달렸다”면서 “한국계 미국인의 이야기가 미국의 이야기라고 할 때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무엇인지가 문제”라며 각자의 기여를 당부했다.

스트리클런드 의원 “한국계 미국인의 경험은 미국인의 경험”

한국계인 스트리클런드 의원은 “한국계 미국인의 경험이 미국인의 경험이다. 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딸”이라면서 “우리는 군인으로, 사업가로, 교육자 등으로 미국 어디에나 있다. 우리는 이 나라의 일부”라고 말했다. 이어 “워싱턴 DC가 현재 좀 혼란스럽고, 분열돼 있지만, 한국계 커뮤니티는 미국

‘한국 사위’ 호건 美 메릴랜드주지사 8년 임기 마치고 퇴임

공화당 내 ‘反트럼프’ 인사로 차기 대선 도전할 듯

부인이 한국계여서 이른바 ‘한국 사위’로 불렸던 래리 호건 미국 메릴랜드주(州) 주지사가 높은 주 내 지지율 속에 8년 임기를 마무리하고 1월 18일 (이하 현지시간) 퇴임했다.

여론조사기관 곤살레스가 지난 1월 9~14일 엿새 동안 메릴랜드 등록 유권자 823명을 상대로 조사해 17일 공개한 결과(오차범위 ±3.5%포인트)에 따르면 호건 주지사에 대한 지지율이 77%로 나타났다고 메릴랜드 지역 매체 WBAL이 보도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81%, 공화당 지지층에서는 68%, 무당층에서는 76%의 유권자가 호건 주지사를 각각 지지한다고 밝혔다.

메릴랜드주는 민주당 세가 강한 지역이지만 공화당 소속인 호건 주지사는 중도 온건 성향으로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높은 지지를 받아왔다. 곤살레스는 지난 8년간 호건 주지사의 주내 지지율은 67~78%였다고 밝혔다.

호건 주지사는 2015년 첫 임기를 시작해 재선에 성공하며 두 번의 주지사직을 수행했지만, 메릴랜드주의 3선 제한 규정 탓에 이번에 물러나게 됐다. 그의 후임은 메릴랜드에서 첫 흑인 주지사인 민주당 소속 웨스 무어다. 지난 선거에서 무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

령이 공개적으로 지지한 덴 콕스 메릴랜드 주의회 의원을 꺾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각을 세웠었던 호건 주지사는 당시 같은 당임에도 콕스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다.

공화당 내 ‘잠룡’으로 분류… 전국적 지지율 견인은 숙제

호건 주지사는 2024년 대선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 공화당 잠룡으로 분류되며, 이미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과도 당내에서 경쟁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이날 공개된 여론조사는 메릴랜드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됐다는 점에서 전국적인 인기와는 큰 차이가 있다. 호건 주지사는 아직 전국적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물론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주지사 등에게 지지율에서 크게 밀리고 있다. 하지만 그는 공화당 연방상원 지도부의 상원의원 출마 권유를 뿌리칠 정도로 당내에서는 인정받고 있고, 차기 대선을 노리겠다는 의향도 숨기지 않고 있다.

호건 주지사는 한국계인 유미 호건 여사를 부인으로 뒀 재임 기간에 한국에 대한 관심을 자주 표출했다. 재임 8년 내내 ‘미주 한인의 날’ 행사를 개최해온 그는 1월 5일 주 정부 청사에서 열린 한인 이민 120주년 및 ‘미주 한인의 날’ 기념행사 축하사에서 “한인들의 미주 이민 120년을 축하하며 그들이 우리 메릴랜드와 미국 사회에 엄청난 긍정적 영향을 남긴 데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주지사직을 내려놓지만 저는 영원히 한국의 사위이며 이를 자랑스러워할 것”이라면서 한국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호건 주지사는 또 “언론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일 텐데 우리가 공관에서





4

이사 나갈 때 당연히 김치냉장고도 가져간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호건 부지사는 앞서 지난해 11월 22일에는 이날을 ‘김치의 날’로 선포한 바 있다.

재임 기간 내내 한국에 큰 관심… 마지막 공식 행사도 한인 관련

1월 5일 그의 마지막 공식 행사에는 메릴랜드주 정부 관계자와 지역 한인 사회 인사, 주미한국대사관의 권세중 총영사 등이 참석했다. 권 총영사는 “지난 120년은 한인 사회의 근면함, 흔들리지 않는 직업정신, 가족과 이웃에 대한 사랑 덕분에 가능했다”며 “한국 정부와 대사관을 대표해 한국계 미국인 사회의 성장을 계속 지원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호건 주지사가 앞으로도 변함없이 한미동맹을 지지하고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어주시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윤석열 대통령의 축하 퇴임 서한을 대독했다. 호건 주지사는 권 총영사에게 한인 이민 120주년 기념 선포문을 전달했다. 메릴랜드 한인들은 한인 사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온 유미 여사에게 감사패를 전했다.

워싱턴포스트, 공화당에 “대선 후보군에서 호건 제외 말라”

한편, 미국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1월 7일 호건 주지사를 대선 후보군에서 제외하지 말라고 공화당에 당부해 눈길을 끌었다. WP는 ‘공화당이 래리 호건을 고려하지 않으면 그들의 손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만약 호건이 정치적으로 잊히면 공화당의 손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WP가 그의 대선 도전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WP는 호건이 공화당에서 친기업과 감세 등 전통적인 보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2020년 대선 결과가 사기라는 거짓말에 동조하지 않은 소수의 선출 고위직이라고 강조했다. 호건 주지사는 다수 공화당 선출직과 달리 일찌감

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사기 주장 등 강경파의 무리한 주장을 비판해왔다.

이 때문에 공화당 내 입지가 좁아졌으며 지난해 중간선거 때 그가 후원한 주지사 후보가 공화당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후보에 패배하기도 했다. WP는 호건 주지사가 트럼프를 비판해 다수 공화당의 반감을 사면서도 ‘전통적’ 공화당으로의 복귀를 계속 주장할 계획이라며 그런 입장과 재임 기간 거둔 경제 성과가 2024년 대선 캠페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가 출마한다면 공화당은 그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게 현명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1.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1월 5일 메릴랜드주 정부청사에서 개최한 한인 이민 120주년 및 ‘미주 한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왼쪽에서 4번째)가 1월 5일 주 정부 청사에서 개최한 한인 이민 120주년 및 ‘미주 한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권세중 주미한국대사관 총영사(왼쪽에서 3번째)와 함께 선포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에서 2번째 한복을 입은 이가 호건 주지사의 부인 유미 호건 여사다.
3. 지난해 9월 17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메릴랜드주 경제사절단 방한 기자회견에서 호건 주지사(오른쪽)의 부인 유미 호건 여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4. 래리 호건 미국 메릴랜드주지사(앞줄 왼쪽에서 3번째)가 1월 10일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의 주의회 의사당에서 고별연설을 한 뒤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38년째 떡국 떡 기부한 토론토 한인 구자선 평화식품 대표

매년 장학금도 쾌척... “죽을 때까지 계속할 것”



38년째 떡국 떡 기부한 구자선 평화식품 대표



평화식품 공장 내부 둘러보는 구자선 대표(왼쪽)

“**고**국을 떠나 해외에 사는 한인들은 새해가 되면 고향 생각이 특히 더 납니다. 그런 한인들이 떡국을 함께 먹으며 향수를 달랠려면 하는 마음에서 나누는 것이죠.”

캐나다 토론토에서 떡집을 운영하는 구자선(77) 평화식품 대표는 38년째 떡을 기부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구 대표는 토론토 한인회가 1월 3일(현지시간) 현지 한인회관에서 연 신년회 때 참가자들이 함께 먹을 수 있는 떡국에 들어갈 떡 140kg(430명분)을 기부했다.

그는 언론과의 전화 통화에서 “연초에 떡국이 그리운 한인들에게 한 그릇 대접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시작했는데 벌써 40년 가까이 됐다”며 “많은 한인이 좋아하 신다. 죽을 때까지 떡을 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 당진이 고향인 그는 7남매 중 6번째다. 6·25 한국전쟁때 아버지를 여의 고 어머니 슬하에서 자랐다. 17살 때 혼자 서울에 올라와 공사장 일과 신문 배달 등을 하면서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았다. 당시 명절에도 고향을 가지 못했던 일은 아직도 가슴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다.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그는 1972년 광부로 독일에 날아갔다. 3년 동안 막장에서 탄을 캐고, 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귀국하지 않고 곧장 캐나다로 향했다. 독일 탄 광에서 고생을 함께했던 동료와 평화식품을 차린 그는 45년간 한인을 비롯해 중 국계는 물론 현지인들에게 떡, 두부, 콩나물, 만두 등을 제공했다.

식품 회사를 차려서 번 수익은 기부활동으로 이어졌다. 특히 서울에서 고학할 때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그는 장학금 주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회사 직원을 비롯해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한인사회 자녀, 조지 브라운대 학생 등에 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구 대표는 “장학금은 액수보다 끊임없이 지속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것이 보람이고 희망이며 꿈이기에, 힘닿을 때까지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는 장학금 지급과 함께 청소년 역사 교육 세미나와 통일 강연, 장애인 재활 캠프 지원 등을 위해서도 수익을 환원하고 있다.

슬하에 2녀 1남을 둔 그는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일찌감치 선 언했다”며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일하고, 재산은 사회에 환원한 뒤 장기 기증을 하고 세상을 조용히 마감하고 싶다”고 말했다. 구 대표는 2021년 한국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장**

중국 대학에 태권도 전공 과정 처음 생긴다

북경원식국제문화유한공사, 올해 9월 학기부터 중국수도체육대에 개설

중 국 대학에 태권도를 전공할 수 있는 과정이 처음으로 생긴다. 북경원식국제문화유한공사(대표 서원식)는 최근 베이징시의 시립대학 중 유일한 체육대학인 중국수도체육대학교와 오는 9월 학기부터 무술 및 민족 전통스포츠학과 내 '태권도 국제인재반'을 개설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전교생 5천 명의 중국수도체육대학은 중국 국가대표팀이 세계선수권대회와 하계올림픽에서 금메달 79개, 은메달 39개를 획득하는 데 기여했다.

서원식(55) 대표는 2021년 베이징에서 태권도 퍼포먼스 공연팀인 주중한국태권도시범단을 창단해 운영하고 있다. 학생 모집차 방한한 서 대표는 1월 3일 "중국에서 교양과목의 하나로 태권도를 배우는 대학은 있었지만 4년 동안 태권도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 '태권도학과'로 부를 수는 없다"며 "장차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1기 신입생은 전원 한국 학생으로 뽑을 계획이다. 학부생은 태권도 2단 이상 소지한 고교 졸업 또는 동등 학력 이상 소지자다. 석·박사는 태권도 4단 이상 소지자로 비자 발급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서 대표는 "합격자는 오는 3월부터 대학에서 6개월 동안 언어학습을 시작한다"며 "1기 신입생은 수도체육대학의 특기장학생으로 선정돼 등록금과 기숙사 비용은 전액 지원받는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중국은 물론 각국에서 태권도 인재 1명씩을 선발해 2기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서 대표는 "현재 중국에서 한 해 수십 건의 태권도 시범 공연 요청이 들어오지만, 부족한 인적자원으로 태권도를 알릴 기회가 별로 없어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태권도 국제인재반 학생들이 중국 내 태권도 발전과 한·중 우정을 위한 문화교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대표는 경희대 체육학과(태권도 전공)를 졸업한 후 같은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군 복무 후 서울에서 곧바로 태권도장을 차려 체인점 6개를 운영했다. 2008년 중국에 진출한 후 2011년에는 베이징에 '프리미엄 태권도장'을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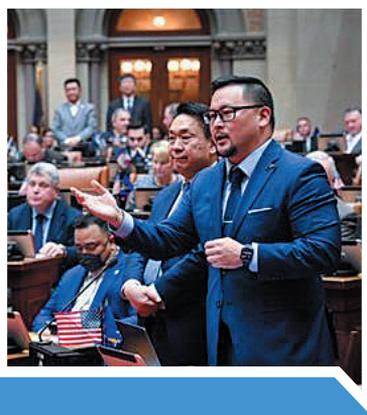
현지인들과의 인맥을 쌓기 위해 칭화대 체육부 박사과정에 들어갔고, 2016년 이 대학 104년 역사상 처음으로 태권도로 외국인 박사학위 취득자가 됐다. 이후 2019년까지 칭화대와 베이징대에서 외국인 최초로 태권도 교양선택 과목 겸임교수도 지냈다. **[참]**



중국 베이징에 있는 중국수도체육대학교



서원식 북경원식국제문화유한공사 대표



론 김 의원, 미 뉴욕주 하원 ‘한인의 날 공식 기념’ 주도 관련 결의안 제출해 통과 성사… “한인사회·뉴욕 상호 발전해야”

미국 뉴욕주 하원이 ‘미주 한인의 날’을 의회 차원에서 공식 기념했다. 한국계 론 김 뉴욕주 하원의원은 1월 17일(현지시간) 뉴욕주의 주도인 올버니에 위치한 뉴욕주 의회에서 한인의 날 결의안 통과를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05년 연방의회가 제정한 미주 한인의 날을 뉴욕주 차원에서도 공식적으로 기념하자는 내용의 결의안을 주 하원에 제출해 통과시켰다.

2012년 한국계로서 최초로 뉴욕주 하원의원이 된 김 의원은 “뉴욕에 대한 한인사회의 수많은 공헌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결의안이 통과돼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한인사회와 뉴욕이 상호 발전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 행사에는 찰스 윤 뉴욕한인회장장과 김의환 주뉴욕대한민국총영사 등 한인사회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한국에서 태어나 7세 때 미국에 정착한 김 의원은 한국계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정치인으로 꼽힌다. 지난해에는 매년 11월 22일인 한국의 법정 기념일 ‘김치의 날’을 뉴욕주에서도 기념하자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주의회에 제출해 통과시키기도 했다.

전흥배 신임 재일본한국인연합회중앙회장 “참정권 획득에 집중” “14만 신정주자 권익 향상과 한일 가교 역할도 앞장”

재일동포 신정주자(新定住者)를 대표하는 재일본한국인연합회중앙회는 2년 임기의 2대 회장으로 전흥배(63) 전 재일관서한국인연합회장을 최근 선출했다.

1월 13일 취임한 전 회장은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재일동포의 숙원인 일본 지방 참정권 획득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재일동포 사회는 일제강점기에 건너온 1세와 그 후손으로 특별영주권자인 구정주자(舊定住者)와 1980년대 이후 유학 등으로 건너와 정착한 신정주자로 구분된다. 현재 신정주자는 14만여 명에 이르지만 한인회에 등록된 회원은 10%에 못 미치고 있다.

전 회장은 “대부분 정주권자인 재일동포는 세금 등을 다 내고 있음에도 지방 참정권이 없고, 국가 공무원의 관리직에도 오르지 못하는 차별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참정권 획득은 일본 사회가 정주 외국인을 구성원으로 받아들여 다문화 공생사회로 나아가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회장은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이들이 뭉칠 수 있도록 지역한인회 활성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권의 향상을 위해 구정주자를 대표하는 재일본대한민국민단과 연대·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997년 동명중공업의 일본 주재원으로 건너와 정착한 그는 유압기·이양기·트랙터 등의 부품을 한국과 중국에서 생산에 일본에 공급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강석희 전 어바인시장, 美 북서부 등 담당 총무청 행정관 부임 애리조나·캘리포니아·네바다·알래스카·오리건주 등 총괄

강석희 전 캘리포니아주 어바인 시장이 미국 서부, 태평양, 북서부 지역을 총괄하는 행정관(Regional Administrator)에 부임했다.

강 전 시장은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연방 총무청(US GSA)의 지역 행정관으로 임명받아 1월 3일(현지시간)부터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본부에서 근무를 시작했다”고 1월 9일 한국 언론에 알려졌다. ‘Regional Administrator’는 지역 총괄 조달청장에 해당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가 관할하는 지역은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네바다, 알래스카, 아이다호, 오리건, 워싱턴, 아메리칸사모아, 동아시아, 괌을 말한다.

GSA는 미국 정부가 소유한 8천300곳의 건물을 관리 감독하고, 건설·보수 등 전반적인 일을 추진하며 연방정부 기관들이 사용하는 모든 물자를 조달한다. 연방 정부가 필요한 25만대 이상의 차량을 조달하고, 모든 미술품도 관리한다. 또 모든 IT(정보·기술) 시스템을 관리 감독하는 등 연방 정부의 살림을 기획하고 대통령의 정책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강 행정관은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고, 그동안 정치 생활을 하면서 배운 모든 것을 활용해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1977년 고려대를 졸업한 후 미국에 이민한 그는 전자제품 유통회사에 영업사원으로 일하다 19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을 목격하고 한인 정치력 신장의 필요성을 절감해 정계에 진출했다.

한미장학재단 이사과 회장, 한인사회 옹호 단체인 한미연합회 오렌지카운티 이사장, 한미민주당협회 창당 등 정치 활동을 하다가 2004년과 2006년 어바인 시의원에 출마해 당선됐다. 2008년 한인으로는 처음으로 직선으로 치러진 어바인 시장에 당선됐고, 2010년 재선에 성공했다.

시장 재직 이후 어바인 캘리포니아대학(UC 어바인) 총장 마이클 드레이크의 특별 고문과 채프먼대학의 겸임 교수를 지냈다. ‘한국전 참전비 건립위원회’ 상임고문으로도 활동했고, 최근까지 미주한인정치연합(KAPA) 이사장을 맡아 한인 정치력 신장에 힘을 모았다. **창**



해외 거주 日 원폭 피해자 수당 지급 끌어낸 곽귀훈 씨 별세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서 피폭... 상반신에 심한 화상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피해를 본 뒤 다른 나라로 이주한 사람에게도 일본 정부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끌어낸 피폭자 곽귀훈(郭貴勳) 씨가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1시 58분께 경기도 광주의 위더스 요양병원에서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1월 2일 전했다. 향년 98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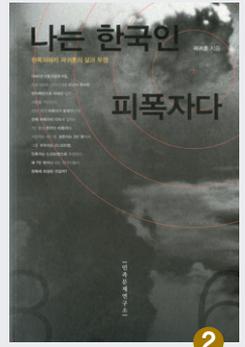
일본 교도통신도 이날 일본 시민단체 ‘한국 원폭 피해자를 돕는 시민모임’ 이치바 준코(市場淳子) 회장의 말을 인용해 고인의 별세 사실을 전했다.

전북 임실에서 태어난 고인은 1944년 9월 전주사범학교 5학년 때 히로시마 서부에 있던 부대로 징집됐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1945년 8월 6일에는 원폭 투하 지점에서 약 2km 떨어진 공병대에 파견 근무 중이었다. 목숨은 건졌지만, 상반신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

그해 9월 귀국한 뒤 1950년대 일간지에 피폭 수기를 연재해 한국인 원폭 피해자 문제를 제기했다. 1967년 한국원폭피해자협회를 결성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1965년 한일협정으로 보상은 끝났다”는 대답만 들었다. 1975년 아사히신문사의 ‘피폭 한국인’ 책 발간에 참여했다.

고인은 전주성심여고, 금산상고 지리 교사와 서울 명성여고 교감,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 교장으로 일한 뒤 1989년 정년퇴임을 계기로 본격적인 권리 찾기에 들어갔다. 1998년 입원 치료차 일본에 갔다가 7월 귀국 후 수당 지급이 중단되자 같은 해 10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본 정부가 원폭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원호 수당을 일본 밖에 거주한다고 해서 못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오사카지법에 소송을 냈다.

2001년 6월 1심과 2002년 12월 5일 오사카 고법 2심에서도 승소했다. 이 판결 덕분에 일본 밖에 거주하는 원폭 피해자 5천여 명이 매년 1인당 400만 원가량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13년 원폭 피해 경험과 재판 과정을 담은 책 ‘나는 한국인 피폭자다’를 펴냈다.



그는 대한산악연맹이 선정한 ‘산악계의 별 50인’에 꼽힐 정도로 유명한 산악인이기도 했다. 1962년 대한산악연맹 창립 시 회원으로 참여했고, 대한산악연맹 이사(1969~1976)와 감사(1989~1997)를 지냈다. 1971년에는 국내 최초의 해외원정대였던 대만 옥산 원정대장을 맡았고, 1995년과 1997년 티베트 탐사에도 나섰다.

‘실크로드의 어제와 오늘’(1984), ‘밝아오는 남극대륙’(1986), ‘천년의 고독 티베트’(1996)를 저술했다. 1966년 강원 삼척 초당굴을 탐사했고, 같은 해 한국동굴협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아들 곽효성 씨는 “1960년대에 이미 일본과 유럽을 돌아다니며 영상을 찍어서 전주시민회관에서 상영했을 정도로 진취적인 분이였다”고 말했다.

고인은 전북 임실 선영에 안장됐다. **장**

1. 고(故) 곽귀훈 씨의 2013년 모습(이하 민족문제연구소 제공)
2. 고인의 저서 ‘나는 한국인 피폭자다’의 표지

美 시애틀 항만청 위원장에 한인 2세...

112년 만에 첫 아시안

조세현 씨 “한국 스타트업 미국 진출 돕겠다”



1



2

30대의 한인 2세가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항만청의 수장에 올랐다.

재미동포 매체 조이시애틀은 최근 시애틀 항만청의 발표를 인용해 “샘 조(한국 이름 조세현 · 32) 커미셔너가 항만청 위원장(president) 선거에서 승리했다”면서 “시애틀 항만청 창립 112년 만에 처음으로 아시아계 위원장이 나왔다”고 전했다.

취임식은 1월 10일(현지시간) 시애틀 항만청 본부에서 축하 리셉션을 겸해 열렸다. 조 신임 위원장은 미국 공항에서 10번째로 큰 시택(Sec-Tac)공항과 캐나다를 포함해 북미에서 7번째로 큰 항구인 시애틀항을 관리·운영한다. 연간 4억 달러(약 5천억 원)에 달하는 항만청의 예산도 집행하고 이사회를 지휘 감독한다. 책임자(CEO)와 선출직 커미셔너(관리책임자) 5명, 직원 2천여 명도 지휘한다.

조 위원장은 “항만청 사상 처음으로 한인 위원장에 올라 기쁘다”며 “워싱턴주와 한국과의 협력관계를 더 증진하는 한편 한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긴밀하게 협조해 한국항공, 항

만 분야의 스타트업들이 미국에 진출할 수 있게 돕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해 5월 작고한 그의 부친 조규철 씨는 시애틀에 이민해 세탁소를 운영했다.

현지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그는 아메리칸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한 뒤 런던정경대에서 정치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연방 하원의원 보좌관으로 활동하다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당시 백악관 행정차관 특별보좌관으로 일했다.

워싱턴 주지사로부터 아시아·태평양위원회(CAPAA) 커미셔너로 임명되기도 했던 그는 2019년 치러진 시애틀 항만청 커미셔너 선거에서 한인 최초로 당선돼 항만청 제2위원회 커미셔너로 일해왔다. [▶](#)

1. 아시안 출신 첫 시애틀 항만청 위원장에 오른 샘 조 씨(조이시애틀 제공)
 2. 샘 조(왼쪽에서 7번째) 시애틀항만청 커미셔너 위원장이 1월 10일 취임식에서 한인 참석자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한국일보 제공)

항일역사 상징 블라디보스토크 ‘신한촌 기념탑’의 복잡한 속사정

해외한민족연구소가 1999년 후원금 3억여 원으로 건립



1



2

‘항일 독립운동 성지’, ‘해외 독립운동 상징’, ‘항일·민족운동 전초기지’….

112년 전인 1911년 러시아 극동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시 외곽 야산에 조성됐던 한인 집단 거주지 ‘신한촌’(新韓村)을 언론 등에서 소개할 때 사용한 표현들이다. 1915년 이곳에 거주했던 한인 동포는 1만여 명에 이르렀고 이 동휘, 이상설, 홍범도 등 일제에 빼앗긴 국권을 되찾으려는 우국지사들이 집결하면서 항일 독립운동의 요람이 됐다.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지금은 아파트와 상가시설 등이 들어선 까닭에 옛 신한촌의 흔적은 찾을 수 없다.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카야 거리에 있는 ‘신한촌 기념탑’만이 당시 치열하게 전개됐던 우리 독립운동을 알려줄 뿐이다.

높이 3.5m가량의 대리석 기둥 3개를 중심으로 건립된 이 시설은 1999년 사단법인 해외한민족연구소가 후원금 3억여 원을 들여 마련했다. 기념탑은 한국 관광객과 현지 러시아인 등이 연해주에 남아있는 우리 독립운동 역사를 배울 수 있는 유적지 탐방 프로그램에도 반드시 포함되는 시설이다. 현지 고려인 후손들에게 그들의 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이다.

‘부실 관리’ 목소리 10년 넘게 제기돼

하지만 이 지역에 산재한 항일 유적들이 부실하게 관리된다는 목소리는 10년 넘게 꾸준히 제기됐다. 우리 언론 등을 통해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됐듯 신한촌 기념탑도 이 가운데 하나다. 기념탑 관리는 시설 건립 초기과정부터 도움을 줬던 블라디보스토크의 한 고려인단체 회장이 임의로 맡아왔다.

2019년 그가 별세한 뒤로는 부인이 관리를 대신하고 있다. 남편이 몸담았던 고려인단체는 현재 유명무실한 상태로 알려졌다. 예전부터 기념탑 주변으로는 시설 훼손 방지를 위해 철제펜스가 설치돼 관리인이 자물쇠를 채운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출입이 불가능하다.

최근 이곳을 찾았을 때도 출입문은 자물쇠로 채워져 있고, 탑 상단 등에는 2주 전에 내린 눈이 여전히 쌓여 있었다. 이처럼 신한촌 기념탑 관리 부실 문제는 오랫동안 제기됐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최근 상황을 반영한 변명으로는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1.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카야 거리의 '신한촌 기념탑' 모습. 탑 주변에 설치된 철제펜스의 출입문이 자물쇠로 굳게 잠겨져 있다.
2. '독립운동의 요람' 신한촌 기리는 기념탑. 세 기둥 가운데 중간은 한국, 왼쪽은 북한, 오른쪽은 재외동포를 상징한다고 한다.
3.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카야 거리에 설치된 신한촌 기념탑 안내문
4. 2019년 8월 4일 한국 청소년들이 신한촌 기념탑을 방문해 묵념하고 있다.

영향으로 블라디보스토크를 찾는 한국인 관광객 발길이 끊기면서 기념탑에 관심도 줄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표면적인 이유보다 이번 취재로 드러난 그간의 속사정은 매우 복잡했다.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한국총영사관 등에 따르면 기념탑을 설립한 단체는 명확하지만, 현재 이 시설에 대한 소유·관리 주체는 알 수 없다. 기념탑이 완공 후 현지 당국에 정식 등록된 시설인지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또 최근 들어 확인된 내용이지만 기념탑이 들어선 터가 당초 알려졌던 것과 달리 블라디보스토크시 소유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이에 대해 블라디보스토크시는 “기념탑과 부지 소유주 등을 확인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만약 기념탑이 당국에 등록된 게 아니라면 ‘불법 건축물’로 취급돼 최악의 경우 철거될 수도 있다고 한다. 물론 이런 일은 한·러 양국 외교 문제와 기념탑이 갖는 역사·관광 자원적 가치 등을 고려할 때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 다만, 미등록 시설로 판명될 경우 지어진 지 24년이 지난 상황에서 누가, 어떤 절차를 밟아 어떤 성격의 시설로 당국에 등록할지가 과제로 남는다.

지금이라도 소유·관리 주체 분명히 하는 절차 필요

다행히 기념탑이 당국에 등록된 시설이라면 그 근거를 찾아 지금이라도 소유·관리 주체를 분명히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어느

쪽으로 결론 내든 연해주 지역 우리 항일역사를 기리는 대표 유적지의 법적 지위가 20년 넘게 불명확한 상태로 남아있도록 방치한 것은 분명한 잘못이다.

그간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한국총영사관이 해묵은 이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블라디보스토크시와 본격적인 협의에 나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한국총영사관은 현지 법률사무소 등과 기념탑 건립 허가·등록 등 설치 전 과정을 되짚어보고 미비한 점이 발견되면 시설 관련 인물·단체 등과 협의해 보완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후 현지 당국과 적절한 관리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기념탑을 건립한 해외한민족연구소도 모든 문제가 말끔히 해결돼 체계적인 시설 관리가 이뤄지도록 현지에서 요청이 올 경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제 신한촌 기념탑 소유·관리 주체 문제는 우리의 관심으로만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블라디보스토크 현지 매체들도 관련 소식을 전하며 지역에 있는 러시아 외무부 대표사무소 역시 이 사안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과거와 대외 여건이 많이 달라졌지만, 양국 기관 간 협력으로 신한촌 기념비가 하루빨리 제대로 된 지위를 얻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창**

최수호 연합뉴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특파원

재미동포 음악단체 벨칸토, 유엔 '특별협의지위' 획득

오페라가수 등 한인 음악가들로 구성... 지구촌 어려운 이웃에 봉사

미국 뉴욕·뉴저지에서 활동하는 한인 음악가들로 구성된 벨칸토 인터내셔널 소사이어티(이하 벨칸토·회장 주성배)가 유엔으로부터 '특별협의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를 획득했다.

주성배 회장은 1월 27일 한국 언론과의 통화에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ECOSOC)가 1월 23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비정부 기구(NGO) 110개 조직에 이 지위를 부여할 것을 권고했다"며 "재미동포 단체로는 유일하게 벨칸토 인터내셔널 소사이어티가 포함됐다"고 말했다.

벨칸토는 공익서비스와 공연예술로 전쟁·기아·질병·가난으로 어려움에 부딪친 지구촌 이웃들을 돕는다는 취지로 2009년 창립된 비영리 단체다. 오페라 가수와 연주자 등 60여 명으로 구성



주성배 벨칸토 회장(맨오른쪽)이 한인 청소년들과 함께 유엔 본부를 방문한 장면(벨칸토 제공)

됐으며, 그동안 유엔과 지역사회, 연방의회, 연방정부 기관들, 주 사법단체, 한인사회 등에서 230여 차례 문화공연을 했고 청소년과 대학생을 위한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했다.

벨칸토는 앞으로 뉴욕 유엔본부와 유엔 제네바 사무국에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을 받고, 관련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성명을 발표할 수 있다. 각종 행사에도 초대되고, 유엔 시설을 사용할 수도 있다. 지위를 획득하려면 신청기관의 주요 미션, 그간의 활동 내

용, 운영진 소개, 향후 활동 계획서, 수입·지출 명세 보고서, 웹사이트 개설 여부 등을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벨칸토를 이끄는 주 회장은 한미 동맹 50주년 및 이민 100주년 기념 음악회 준비위원장을 지냈고, 미주 한인의 날 기념식과 남북한 유엔 가입 20주년 축하 코리안 페스티벌의 개최를 주도했다.

광주고려인마을, 세계 고려인 단체 하나로 묶는 연합회 추진

오늘 5월 총연합회 출범식 예정

국내 고려인 최대 집거지인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고려인마을(대표 신조야)은 전 세계 고려인 단체의 구심점이 되는 '세계고려인단체총연합회'(가칭·이하 총연합회) 결성을 추진한다고 1월 4일 밝혔다.

총연합회는 국내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등의 국가별·지역별 고려인회가 함께하는 연합회 성격을 띠게 된다.

신조야 대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발생한 고려인 난민을 체계적으로 돕기 위해서 연합 단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또 "연대와 협력을 통해 차세대의 한민족 정체성을 키우고 자긍심을 고취하는 사업을 펼치며, 나아가 고려인사회와 모국이 상생



광주고려인마을의 추석 한마당 축제 장면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려인마을은 각국 고려인단체와 협력해 오는 5월 광주에서 총연합회 출범식을 열기로 했다.

윤교진 전 크라이스트처치 한인회장, 뉴질랜드 정부 훈장 받아

지역사회 봉사한 공로 인정... 한인으로는 3번째 수훈

뉴질랜드 남섬 크라이스트처치의 한국학교 교장인 윤교진(53) 전 한인회장이 한인사회를 포함한 지역사회에 봉사한 공로로 뉴질랜드 정부로부터 '훈장' (Honorary Queen's Service Medal · HQSM)을 받았다.

윤 교장은 "뉴질랜드 정부는 지난해 12월 31일 언론에 '2023 Honours List'를 발표했다"며 "다른 3명의 뉴질랜드인과 함께 여왕이 주는 명예의 메달(HQSM) 수훈자 명단에 올랐다. 2월쯤 총리로부터 메달을 전달받는다"고 1월 13일 한국 언론에 전했다.

뉴질랜드 정부는 그의 공적과 관련, 2011~2015년(11~12대), 2019~2021년(15대) 크라이스트처치 한인회장을 지내면서 2011년 2월 발생한 지진과 2020년 3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윤교진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한국학교 교장

으로 큰 어려움에 부딪친 한인사회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고 기록했다.

또 2004년부터 크라이스트처치 사우스와 케이스브룩 인터미디어트 스쿨, 리카턴 하이스쿨을 포함한 현지 학교에서 한국 무용을 지도하고, 다민족 문화 행사에 참가해 한국문화를 알리고 전파하는 데도 기여했다고 소개했다. 뉴질랜드 정부는 1년여간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훈장 수훈자를 결정한다.

윤 교장은 작고한 이성방 씨, 황선하 전 한국학교 교장에 이어 3번째로 HQSM을 수훈한다. 한국 정부는 윤 교장의 공로를 인정해 2020년 '세계

한인의 날'에 대통령 표창을 줬다. 충북 출신인 윤 교장은 호성여대(현 대구가톨릭대) 무용과를 졸업한 뒤 교사로 일하다 1996년 남편과 함께 크라이스트처치에 이민했다.

광부 파독 60주년... 독일 정착한 탄광 노동자 10명이 말하는 삶

국사편찬위원회, 구술집 발간

올해 광부 파독 60주년을 맞아 탄광 노동자로 독일에 건너간 뒤 정착한 이들이 자신의 삶을 고백한 구술집이 최근 발간됐다. 국사편찬위원회가 기획·간행한 구술 사료 선집 '파독 광부 생애사'에는 1960~1970년대에 서독으로 파견된 김근철(1차 1진) 씨 등 파독 광부 10명의 인터뷰가 담겼다.

광부 파독의 역사는 1963년 12월 2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 광부 123명은 1진으로 처음 서독 땅을 밟았고, 이후 1977년까지 총 7천936명이 파견됐다.

구술집은 이유재(52) 독일 튀빙겐대 한국학과장이 2013년 광부 파독 50주년을 앞두고 2012년 6~10월 이선영 튀빙겐대 한국학과 연구원과 함께 김 씨 등을 인터뷰한 뒤 보고서로 정리한 내용을 다듬어 단행본으로 내놓은 것이다.

이 학과장은 보고서 내용 일부를 추려 2021년 '글뤽 아우프!' (Gluck Auf!)라는 제목으로 독일에서 먼저 단행본을 출간했고, 한국어 번역본에서는 해설 등을 추가하면서 광부들의 인터뷰 전체를



'파독광부 생애사' 표지

실었다. 이 학과장 자신도 파독 광부의 아들이며, 아버지와 함께 독일에 정착한 한인 1.5세대.

이 학과장은 "그간 파독 광부들의 생애사를 포괄적으로 접근한 연구는 없었고, 그들에 대한 연구 자체가 미비한 실정"이라며 "유럽 내에서 가장 오래된 한인 이주사를 가진 파독 광부를 조명함으로써 이주사 연구에 바탕이 될 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작업이었다"고 말했다.

김민걸 국사편찬위원장은 간행사에서 "광부 파독은 국내 과잉 노동력의 해외 송출로 실업 문제를 완화하고 외화 획득률(稼得率)을 제고해 경제 개발에 큰 도움이 됐다"면서 "다른 한편으로 파독 광부들은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고된 노동에 시달렸다"고 설명했다.

서울 암사동 신석기 유적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완성도 높은 빗살무늬토기 출토지

푸른 한강 물이 휘돌아가는 지점에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마을이 있다. 강동구 암사동으로, 이곳에는 6천 년 전에 형성된 신석기 유적지가 자리 잡고 있다. 서울 번두리인 암사동에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완성도 높은 빗살무늬토기가 나왔다는 점은 신기할 따름이다.

빗살무늬토기는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 유물이다. 세계에서 제일 정교하고 발전된 양식의 빗살무늬토기는 암사동을 비롯한 한반도 중서부 지역에서 출토됐다. 이 때문에 최근 고고학계는 빗살무늬토기 문화가 중국 동북부 지역을 포함해 한반도 일대에서 시작됐다고 본다.

암사동 유적지에 관심을 보이는 시민도 많다. 이곳을 찾는 시민은 연간 12만 명가량 된다. 암사동 유적을 중심으로 매년 가을 사흘 동안 펼쳐지는 강동선사문화축제에는 40여만 명이 참여한다.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마을

암사동 유적지에는 신석기시대 선인들이 살았던 집들이 재현돼 있다. 벼짚으로 만든 초가집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역새로 지붕을 올린 움집이다. 신석기시대 한반도에서는 아직 농경이 시작되지 않았고, 한강 변에는 역새가 많았기 때문에 자연히 역새는 집 짓는 재료로 쓰였다.

물고기를 잡거나 야생 동물을 사냥하는 신석기시대 선인들의 모형은 아이들에게 호기심과 재미를 끌어내고도 남을 듯하다. 유적 내 체험 마을에는 아이들이 화살을 쏘아 맞히면 땅바닥으로 쓰러지는 멧돼지, 사슴 등의 모형도 있다.

암사동은 서울에 생긴 가장 오래된 마을일 뿐 아니라 한반도 첫 줄인 한강 유역에 형성된 신석기시대 마을로서는 최대 규모다. 이



1

곳에서 발굴된 주거지는 약 40여 기다. 주거지는 모두 땅을 1m 깊이로 파고 그 위에 지붕을 얹은 움집이다. 한국처럼 사계절이 뚜렷해 겨울이 추운 기후에 적합하다. 집안 중앙부에는 강돌을 원형, 타원형으로 배치해 화덕을 설치했는데 이는 조리, 난방, 조명의 기능을 했다.

이곳에서는 움집 외에도 저장구덩이, 야외 노지, 강자갈을 쌓아 만든 돌무지 시설 등이 확인됐다. 돌들이 열을 받은 흔적이 뚜렷하고 불탄 흙, 숯, 빗살무늬토기 조각 수십 점이 확인돼 돌무지 시설은 토기를 굽던 한뼉가마나 공동 화덕으로 추정된다. 신석기시대 생활문화예술의 정수로 평가받는 빗살무늬토기가 이곳에서 빚어진 것이다.

빗살무늬토기의 '원조' 한반도

3월 빗금, 5월 빗금, 손톱으로 눌러 새긴 듯한 반원, 끝이 둥근 무언가로 찍어 누른 듯한 작은 점들, 'V' 자를 여러 개 겹친 듯한



2

문양 등 빗살무늬토기의 기하학적 아름다움은 머리에 오랫동안 기억될 만하다.

빗살무늬토기는 한국을 비롯해 세계 여러 지역에서 발견됐다. 시베리아 전역에서 나타난다고 해 한때 시베리아 빗살무늬토기 문화 벨트가 그려지기도 했다. 빗살무늬토기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있으나, 흔히 시베리아 기원설이 인용돼 왔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는 중국 동북 지역을 포함해 한반도 일대를 그 기원으로 본다. 이 지역에서 출토되는 토기는 그릇 모양과 문양의 다양성이 특출할 뿐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앞서기 때문이다. 암사동 유적지를 포함해 한반도 중서부에서는 빗살무늬토기 중에서도 가장 정교하고 완성도가 높은 문양의 토기가 나왔다.

암사동에서 나온 빗살무늬토기는 크기가 다양하다. 토기의 아래 쪽은 뾰족하거나 둥근 모양이며 그릇 바깥면에 음각으로 무늬를 새겼다. 토기를 윗부분, 가운데, 아랫부분의 3부분으로 나누어 서로 다른 문양을 조각한 경우가 많다. 윗부분에는 주로 단사선문, 중앙 부분에는 생선 뼈 모양의 문양(어골문)이 새겨져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문양을 볼 수 있다.

암사동 유적에서는 땅을 파는 굴지구, 돌도끼, 멧돌 기능을 하는 갈돌·갈판, 다른 도구를 만들기 위한 고석(古石) 등이 다양으로

발견됐다. 특히 2016년 발굴조사에서 한국 신석기 유적지에서는 처음으로 옥 장신구가 출토돼 한강 유역의 선사시대 예술문화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됐다.

한국은 빗살무늬토기 문화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지역이다. 강동구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암사동 유적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선사 시대 유적은 보존된 것이 많지 않다.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유물이 별로 없어 역사 시대의 것에 비해 주목을 덜 받는다.

그러나 선사시대 문화재를 둘러싼 인식은 바뀌고 있으며, 세계유산등재 노력도 활발하다. 자국의 신석기 유적을 세계유산 목록에 올리려는 중국과 일본의 움직임이 대표적이다. 선사시대 유적의 가치를 재평가하려는 세계적 추세를 고려하면 암사동 유적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전망이 어둡지 않다.

신석기 시대부터 암사동 풀었던 한강

암사동 유적지는 한강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공간이다. 한강을 중심으로 어로와 채집 생활을 했던 마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는 올림픽대로로 가로막혀 한강과 단절돼 있다. 올림픽대로가 없다면 암사동 유적지에서는 한강이 훤히 내다보이고, 한강이 어떻게 선인들의 터전이 될 수 있었는지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유적과 유물은 원래 앓음새에 있을 때 그 가치와 의의가 생생하게 드러난다. 올림픽도로 이 구간의 지하화는 훗날 한국이 좀 더 잘살게 될 때 후손들이 해야 할 몫으로 남을 것 같다. 올림픽대로의 구조를 변경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적과 한강과의 관련성을 조금이라도 보여주기 위해 만드는 것이 암사초록길이다.

초록길이 완성되면 시민들은 유적지에서 한강까지 걸어갈 수 있다. 유적지에서 자동차로 5분 정도 거리의 한강 변에는 광나루공원과 암사생태공원이 있다. 암사생태공원은 1980년대 한강 종합개발사업으로 건설된 콘크리트 호안 블록과 자전거도로 등을 철거해 자연형 호안 생태공간으로 복원됐다. 고덕수변생태공원, 하남시 한강 수변과 연결돼 넓은 자연 생태공간을 형성한다. [\[창\]](#)

1. 서울 강동구 암사동 신석기 시대 유적지 일대 전경
2. 암사동 유적지에 재현된 신석기 시대 움집들. 그 앞에는 당시 주민들이 어구를 정비하는 모습도 재현돼 있다.
3. 암사동에서 출토된 빗살무늬 토기
4. 암사동에서 출토된 갈돌과 갈판. 이들은 신석기 시대 당시 멧돌 기능을 했다.



3



4

해외 한인단체들에 한국 전통문화 용품 지원

재외동포재단은 전 세계 한글학교, 한인회, 한인 문화예술 단체 등에 한국 전통문화 용품을 지원한다. 재외동포 사회의 민족문화 유지·전승과 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고 거주국에 한국 문화를 알리는 공공외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장구·북·꽹과리 등 사물놀이 도구와 가야금·단소 등 국악기, 한복·궁중의상 등 전통의상, 팽이·제기·웃놀이 등 민속놀이 용품이 지원 품목이다. 정기적으로 전통문화 교육을 하거나 거주국 문화 행사에 참여하는 단체에 우선 지원한다. 재단은 코리아넷 사이트(www.korean.net)에서 2월 21일까지 신청을 받았다.



러시아 극동지역 사물놀이 연주단 '해동'의 단원들이 2020년 9월 15일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교(FEFU) 캠퍼스에서 한국의 사물놀이 공연을 하는 모습

'2023년도 제12기 OKFriends 봉사단' 모집

재외동포재단은 글로벌 코리안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할 '2023년도 제12기 OKFriends 봉사단' 90명을 모집한다. 'OK Friends 봉사단'은 재단이 실시하는 재외동포 대학생 모국연수 등 다양한 초청사업의 진행요원으로 참여해 차세대 재외동포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공공외교단으로서 재외동포 사회에 파견돼 현지 동포사회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활동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이다. 재단은 이사장 명의의 수료증을 발급하며, 우수 활동자에게는 공공외교단으로 해외 파견 기회를 부여한다. 재단은 글로벌 코리안 네트워크 확산에 관심과 열의가 있는 대학(원)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관련 문의는 재외동포재단 차세대사업실로 하면 된다.

문의는 전화(82-64-786-0277, 82-2-3415-0172)나 이메일(okfriends@okf.or.kr)로 하면 된다.



2022년 3월 26일 열린 '제12기 OKFriends 봉사단' 발대식 모습

재외동포 한글 교육 사이트 '스터디코리안' 해외 통신원 8기 모집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 한글 교육 전용 사이트인 '스터디코리안'의 해외 통신원을 모집한다. 재외동포 사회에서 차세대의 한민족 정체성 함양을 담당하는 한글학교의 우수 활동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다. 글쓰기 능력이 우수하고 취재 활동이 가능하며 한인 커뮤니티와 한글학교 활동에 참여하는 재외동포가 모집 대상이다.

통신원은 '스터디코리안' 사이트에 한글학교의 다양한 행사와 교육 성과를 소개하는 기사 또는 칼럼을 월 2회 작성하거나 동영상 제작해 올려야 한다. 활동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작성된 콘텐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된다.

2월 24일까지 홈페이지(<http://study.korean.net/>)에서 신청을 받았으며 3월 중에 통신원을 선발해 개별 통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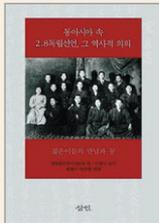
스터디코리안 해외통신원 8기 모집 안내문

재외동포재단 자료실 추천 도서

동아시아 속 2·8 독립선언, 그 역사적 의미

재일한인역사자료관 / 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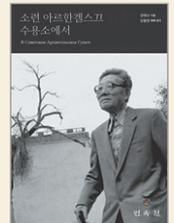
1919년 2월 8일 일본 도쿄의 한 강당에서 조선인 청년들이 모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다. 이들 청년의 목소리에 영향받아 같은 해 3·1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일본과 각 지역의 역사학자들은 '2·8 독립선언'이 3·1 독립운동 전개에 영향을 끼친 역사적 사실을 넘어 동아시아에서 전개된 민족운동과 오늘날의 영향도 되짚어야 한다고 논의했다. 일본과 한국, 타이완 등의 역사학자들이 모여 이런 주제를 다룬 도서를 최근 출간했다. 재일한인역사자료관이 발간한 이 책에서 학자들은 오늘날 동아시아 학생들이 동아시아 차원에서 2·8 독립선언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유대를 주제로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소련 아르한겔스크 수용소에서

강태수 / 민속원

1937년 소련 극동지방에서 카자흐스탄으로 떠나는 강제 이주 열차에서 끔찍여 쓴 시 한 편 때문에 소련 인민의 원수로 몰려 수용소에서 강제 노역을 한 한인 동포가 있다. 그는 우리말로 쓴 이 시 한 편으로 1938년부터 1959년까지 12년간 강제 노역을 치러야 했다. 수용소에서 석방된 후 레닌 기치, 선봉, 고려일보 등 유서 깊은 고려인 신문들이 그의 시를 출간했다. 석방 후 시력을 잃고 자택에서 생을 마감한 동포 시인 강태수의 드러나지 않은 삶은 그의 시에 잘 녹아 있다. 그의 시 '길을 가면서'의 영인본과 삶을 다룬 도서가 최근 발간됐다. 프랑스 국적 재외동포인 김필영 교수는 동포의 눈으로 강태수의 삶을 정리했다. 소련에서 고려인 작가 조명희 선생을 만났던 일, 강제 이주 열차에서 시를 써 내려갔던 밤, 수용소에서의 하루하루 등 강 시인의 과거를 각 장에서 회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캄보디아한인회, 독거 한인에 '안심 디지털시계' 보급

캄보디아 한인회(회장 정명규)가 홀로 사는 한인 등에게 GPS 위치추적 장치를 단 '안심 디지털시계' 보급한다. 한인회는 국내 IT전문 기업인 이음크리에이티브(대표 안영식)와 협의회 GPS 위치추적 장치를 단 디지털시계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나섰다, 최근 테스트를 거쳐 캄보디아 상황에 맞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마쳤다. 시계와 연결된 앱에서는 심장 박동수와 혈압, 산소포화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위급 상황 시 한자가 버튼만 누르면 위치 정보도 알려준다. 한인회는 이 기업으로부터 25개의 시계를 후원받았고, 현재 5개를 시험 운영 중이다.

유럽한인 차세대 한국어 웅변대회, 3월 폴란드서 개최

유럽한인총연합회(회장 유제현·이하 유럽총연)는 오는 3월 17~19일 사흘간 폴란드 브로츠와프에서 '제10회 유럽한인 차세대 한국어 웅변대회'를 개최한다. 유럽총연은 한인 차세대의 우리말 사용을 장려해 정체성을 함양하기 위해 매년 대회를 열고 있다. 올해는 '유럽 한인 100년의 역사', '자랑스러운 한국·한국인', '한반도 통일과 미래', '우리말 우리글', '나의 꿈' 등이 주제로 초등부, 중고등부, 다문화가정부로 나눠 경연한다. 초등부는 만 3년 이상, 중고등부는 5년 이상 유럽에 거주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재일동포 청년들, 나가노서 정체성 함양하는 '동계 잼버리' 개최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산하의 재일한국학생회가 재일동포 대학생과 일본 유학 중인 한국인 대학생 등이 자리에 모여 교류하는 '2023 동계 잼버리' 대회를 개최한다. '평생의 친구를 만나보자'라는 주제 아래 나가노현 마쓰모토시에서 2월 28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연다. 강연·토론과 스포츠를 통해 한민족 정체성을 함양하자는 취지다. 참가자들은 일본 주류 사회에서 활약하는 선배를 초청해 '재일동포로 어떻게 살 것인가', '재일동포 역사' 등을 주제로 강연을 듣고 토론에 참여한다. 이 행사는 재외동포재단이 후원한다.

뉴욕한인회, 120주년 '미주 한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미국 뉴욕한인회(회장 찰스 윤)는 1월 13일(현지시간) 맨해튼 지그펠드 볼룸에서 제120주년 '미주 한인의 날' 기념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척 슈머 연방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 그레이스 멩 연방 하원의원 등 주요 정치인을 비롯해 한인회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한인들의 수가 늘어날수록 미국 사회는 발전하고 변형한다. 앞으로의 미국 사회를 보려면 한인사회를 보면 된다"고 찬사를 보냈다. 애덤스 시장은 이날을 뉴욕시의 한국계 미국인의 날로 선포했다. 이에 찰스 윤 회장은 "모두 힘을 모아 더 좋은 사회를 건설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 7월 20~22일 샌프란시스코서 학술대회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회장 추성희)는 오는 7월 20~22일 사흘간 샌프란시스코에서 창립 41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연다. 이번 학술대회는 '21세기 차세대 교육의 지향점-한인 이민사와 함께 하는 한국학교의 역할과 새로운 지향점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열린다. 한국학교의 역할을 통해 21세기를 책임질 차세대 교육의 지향점을 짚어보는 자리라 될 것이라고 NAKS 측은 설명했다. 미국 내 1천 개가 넘는 한국학교 연합체인 NAKS는 1981년 창립, 산하에 14개의 지역협의회를 두고 있다. 교사 8천여 명이 8만여 명의 학생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 등을 가르치고 있다.

한인회·한글학교 등 동포단체 행사를 소개합니다. 널리 알고 싶은 소식을 이메일(prc@okf.or.kr)로 보내주세요

특별한 인연으로 만난 한글학교 교사들

전 세계 한글학교 교사들과 함께해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 어느덧 교수직 정년을 3년 남짓 남겨두고 있다. 짧은 글을 통해서나마 지난 세월을 반추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내가 한글학교 교사들과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된 것은 2009년 2월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와 재외동포재단이 재외동포 교육문화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맺으면서다. 이후 대학 국제언어교육원은 '재외 한글학교 교사를 위한 사이버 연수 과정'을 재단으로부터 수탁해 15년간 운영해 오고 있다. 나는 세계 지역별 한글학교 교사 연수에 특강 강사로 꾸준히 참석했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대면 강의를 진행했고 코로나19 기간에는 화상 비대면 강의를 진행했다.

2009년 8월 제1회 사이버 연수 과정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이후 10월 뉴질랜드한인학교협의회가 주최한 교사 연수 특강에서 해외 첫 대면 강의를 했다. 앞서 9월 초 어머니가 위암으로 돌아가시고 맞은 추석 명절을 제쳐놓고 뉴질랜드행 비행기에 올랐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뉴질랜드 한글학교 교사들의 열정적 반응에 크게 감동했다.

이후 기획했던 한글날 기념 '국내 및 해외 한국어 교육자 체험수기 공모전'을 구체화해 2010년에 1회를 시행한 뒤 올해로 14회를 맞게 됐다. 공모전 횟수를 거듭할수록 수상작들이 많아져 책 출간을 계획했으나, 전 세계 한글학교 교사들이 생생하고 다양한 경험담을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1회부터 13회까지의 수상작들을 본교 한국어교육학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재외 한글학교 교사를 위한 사이버 연수 과정'은 한글학교 교사의 전문성 강화와 한국어 교수 능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과정은 재외 한글학교 교사들이 향후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기초과정이자 필수과정인 '온라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육효창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장,
한국어교육학과 교수

으로 구성됐다.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이 부족한 한글학교 교사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과정이고 이 점은 지금도 유효하다.

이 과정을 수료한 전 세계 한글학교 교사들은 대학의 특별장학금 지원에 힘입어 본교 한국어교육학과에 진학해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을 많이 취득했다. 또 재외동포재단에 건의해 약 1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2019년에 본교와 재외동포재단이 한글학교 교사 학위 취득 과정 장학 지원 MOU를 맺었다. 아울러 더 많은 한글학교 교사들이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다른 대학까지 MOU 범위를 확대하는 데도 힘썼다.

재외동포재단은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한글학교 초청 연수를 취소했으나, 2021년에는 최초로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환해 연수를 재개했다. 재외동포재단의 온라인 연수 대행 기관 선정을 위한 입찰 경

쟁(4 대 1)에서는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와 한국능력협회가 뽑혔다. 2021년 재외 한글학교 교사를 위한 온라인 연수에는 8월에 전 세계 한글학교 교사 440명이 1, 2차로 나뉘어 참여했다. 비대면 온라인 연수임에도 대면 연수의 특징(연수생 간 토론 및 네트워킹, 그룹수업 등)을 최대한 반영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온라인 연수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초로 시행한 한글학교 교사 온라인 연수의 총괄책임자인 나에게 큰 기쁨이었다. 2019년에 종이문화재단과 MOU를 맺고 한글학교 교사들을 위해 '온라인 종이접기 강사 자격증 과정'을 처음으로 개발한 일도 잊을 수 없다. 코로나19 시기에 한글학교 교사들에게 매우 유용한 콘텐츠로 자리매김했다. 나는 정년 이후에도 한글학교 교사들을 위한 일을 계속해 그들과의 특별한 인연은 이어갈 예정이다. **장**

제12기 OKFriends 봉사단 모집



재외동포재단은 글로벌 코리안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할 '2023년도 제12기 OKFriends 봉사단'을 모집합니다. 'OKFriends 봉사단'은 동포재단이 실시하는 재외동포 대학생 모국연수 등 다양한 초청 사업의 진행요원으로 참여하여 차세대 재외동포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공공외교단으로서 재외동포사회에 파견되어 현지 동포사회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글로벌 코리안 네트워크 확산에 관심과 열의가 있는 대학(원)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문의는 재외동포재단 차세대사업실 전화(82-64-786-0277, 82-2-3415-0172)나 이메일(okfriends@okf.or.kr)로 하면 됩니다.

■ 모집 일정

- 서류접수: 2023년 2월 1일(수)~2월 26일(일) 18:00 마감
- 면접대상자 발표: 2023년 3월 7일(화)
- 면접일(예정): 2023년 3월 11일(토)
- 최종 선발자 발표: 2023년 3월 15일(수) 17:00 이후
- 봉사단 발대식 및 워크숍: 2023년 3월 25일(토)~26일(일)
(최종합격자 대상)

※상기 일정은 재단 사정, 정부방역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 봉사단 발대식 및 워크숍 필참(불참시 선발 취소)

■ 선발인원 및 활동 기간

- 선발 예정 인원: 국내 거주 대학교(대학원) 재·휴학생 90명
- 활동 기간: 2023년 3월~12월(10개월)

■ 지원자격

- 2023년 2월 현재, 국내 거주 대학교(대학원) 재·휴학생. 전공 제한 없음(※입학예정자 지원 가능)
- 활동기간 동안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활동할 수 있는 자
- 글로벌 코리안으로서의 가치관과 글로벌 리더의 소양을 갖고 있는 자(※공공외교활동, 자원봉사 활동 경험자, 국제캠프 진행요원 경력자 우대)
- 외국어 능력 우수자 우대(일상적 의사소통 가능자, 영어·일어·중국어·러시아어·스페인어 등)

■ 주요 활동 및 혜택

• 주요 활동

2023 재외동포 대학생 모국연수(오프라인) 참가자 인솔 / 통역 등 캠프 운영 전반 / 2023 재외동포 대학생 모국연수(온라인)시 번역 등 운영 보조 / 우수활동 단원 해외 파견(공공외교단) / 자체 봉사활동 / 재외동포재단 행사 보조

• 혜택

재단 이사장 명의 수료증 발급(※모국연수 활동, 해단식 참석 조건) / 활동 수료 포상 / 안전 교육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 / 단복 지급 / 공식 모임 참석 교통비 실비 지급(서울·수도권 외 지방 거주 단원에 한함) / 재외동포사회 봉사활동 및 해외파견을 통한 공공외교활동 기회 제공

2023년 2월 재외동포재단 임원 동정

김성곤 이사장

- 2월 2일: 조셉 윤 교수 면담
- 2월 3일: 이덕호 중국 청도한인회장 면담
- 2월 6일: 장소원 국립국어원 원장 면담



750만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하나로 통하는 첫 번째 온라인 세상 코리아넷

코리아넷 회원에 가입하시면 재외동포 민원, 재외동포 단체,
재단 지원사업 등 관련 정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
민원



재외동포
지원 사업



단체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지원



재외동포
뉴스

